

# ‘당하다’의 사전 기술에 대하여

이 안 구 (李安九)

## 1. 머리말

현대 한국어의 ‘당하다’는 한자 ‘當’에 ‘-하다’가 결합한 것으로, 기존의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 주로 피동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졌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전에서 ‘당하다’의 용법이 어떻게 기술되어 왔는지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기존의 사전을 참조하여 재구성하거나 보완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당하다’의 사전 기술을 시대순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전에 있어서의 기술 양상의 변화나 사전들 사이의 영향 관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어를 표제항으로 하고 한국어로 뜻풀이를 제시하는 한국어 사전 중 사전편찬사적 의의가 있거나 널리 사용된 바 있는 사전 15종을 이용하였다.<sup>2</sup> 먼저 2장에서는 각 사전에서의 ‘당하다’의 기술 양상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사전의 뜻풀이 기술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비교하는 한편,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예를 들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당하다’의 사전 기술 양상

여기에서는 사전에서 ‘당하다’의 용법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

1 최현배(1937/75)에서 ‘하다’ 대신에 ‘되다’, ‘받다’, ‘당하다’를 갈아 넣으면 피동형(둘째 입음법)이 된다고 언급한 이래로, ‘당하다’는 주로 피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당하다’를 문법적 피동의 기제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연구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피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문법적 처리의 문제를 떠나 ‘당하다’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다. ‘당하다’의 사전 기술을 1990년대 이전과 이후의 사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sup>3</sup> 북한에서 편찬된 사전도 몇 가지 함께 살피기로 한다.

## 2.1. 1990년대 이전에 편찬된 사전

다음의 (1)-(3)은 1920-40년대에 나온 초창기의 사전에 기술된 ‘당하다’의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1)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은 보통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한국어로 뜻풀이가 이루어진 최초의 학습 사전이다.<sup>4</sup> (2)의 <조선어사전>은 대역 사전이나 학습 사전이 아닌 본격적인 한국어 사전으로 출판된 최초의 사전으로, 이후에 나오는 국어 사전의 체계를 이끌어 갈 형식상의 전범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의 <표준 조선말 사

2 20세기 이전의 대역 사전류 중에서도 ‘당하다’가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18세기에 간행된 대역 사전 중에는 <동문유해(1748)>, <몽어유해(1790)>, <왜어유해(1781)>에서 ‘당하다’를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當’이라는 한자를 큰 글자로 내세우고, 그 아래에 雙行注로 ‘-후다(동문下60a), (몽어下49b)’, ‘당할 당(왜어下42a)’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간행된 대역 사전 중에서는 <한불조연(1880)>, <국한회어(1895)>, <한영조연(1897)>에 ‘당하다’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당하다/당후다’를 먼저 제시하고 뒤에 한자 ‘當’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대역 사전류의 기술은 표제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역어를 제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불조연>에서는 ‘육을 당후다’라는 예문을 제시하였으며, <한영조연>에서는 다음의 (1)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단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당후다 s. 當 (맛당) To be just ; to be right ; to be fitting ; to be proper. To meet ; to bear ; to happen. See 맞나다. To match ; to be equal to. See 당연후다.

3 1988년에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1990년대 이후로 새로운 사전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1990년대 이전의 사전들은 대부분 1930-6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1970-80년대에는 주로 기존 사전들의 수정·증보 작업이 이루어졌다.

4 한국어를 표제어로 하고 한국어로 풀이를 제시한 최초의 한국어 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말모이>는 1910년 조선광문회에서 편찬을 시작하였으나, 출판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말모이>의 원고는 ‘ㄱ’부터 ‘갈죽’까지의 부분만이 남아 있어 ‘당하다’의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20세기 이전의 대역 사전과는 달리 근대적 사전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朝鮮總督府 편찬 <朝鮮語辭典> (1920)에는 다음에서 보듯이 ‘適合하다’, ‘匹敵하다’라는 용법이 기술되어 있다.

(1) 당(當)하다 活 ① 適合す. ② 匹敵す.

전>은 이윤재가 편찬하고 이후에 김병제가 간행한 것으로, 해방 이후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1)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심의린 (1925)

당하면(當 當) ① 만나면. ② 닥치면.

(2) <조선어사전> 문세영 (1938)

[당하다] 여변 [-하여, -한] ㉠ ① 만나다. ② 닥치다. ③ 맞다. 當  
 [당하다] 여변 [-하여, -한] ㉡ ① 대적하다. ② 감당하다. ③ 보다. 當

(3) <표준 조선말 사전> 이윤재 (1947)

당-하다 <-하여, -하니> ㉢(當…) ㉣ 사리에 맞다. ㉤ 달아서 만나다.  
 ㉥ 넉넉히 이겨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의 사전들은 용법 기술이 매우 간략하며 용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1)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에는 ‘만나다’, ‘닥치다’의 의미만이 간단히 기술되어 있고, (2)의 <조선어사전>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나누었는데, 자동사의 용법으로는 (1)에서 제시된 ‘만나다’와 ‘닥치다’ 이외에 ‘맞다’의 뜻풀이가 쓰였으며, 타동사의 용법으로 ‘대적하다’, ‘감당하다’, ‘보다’<sup>5</sup>의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1)-(2)에서는 단독의 용언으로 뜻풀이를 제시하는 데에 비해, (3)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어 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1929년에 조선어 사전 편찬 위원회가 조직된 이래로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사전 편찬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일제의 탄압과 6·25전쟁 등의 시대적 상황으로 지연되다가 1947년에 이르러서야 <큰사전> 제 1권이 간행되고, 1957년에는 전 6권이 완간되었다.<sup>6</sup> <큰사전>은 백과사전 성격을 갖추어 많은 양의 표제어를 수록하였으며, 가끔 예문을 소

개하여 실제 용법을 보였다.

(4) <큰사전> 한글학회 (1947-57)

당-하다(當-) [어. 여벗] 사리(事理)에 맞다.  
 [제. 여벗] 달아서 만나다. 이르러서 맞달다.  
 [남. 여벗] ① 넉넉히 이겨내다. ② 닥쳐 오는 일을 감당하다.  
 -당하다(當-) [발. 여벗]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그 동작이 수동적(受動的)  
 임을 보이는 동사를 이루어 주는 말. [결박-. 거절-]

(4)에서 볼 수 있듯이 <큰사전>에서는 ‘당하다’의 ‘사리에 맞다’라는 용법에 대해 형용사로 품사를 제시하고, 처음으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서의 용법을 기술하였다. (4)의 뜻풀이 중 ‘사리에 맞다’, ‘달아서 만나다’, ‘넉넉히 이겨내다’라는 기술은 앞서 살펴본 (3)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3)의 <표준 조선말 사전>을 편찬한 이윤재가 조선어 사전 편찬 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3)과 (4)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7</sup>

한편, <큰사전>은 한국어 사전 편찬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이후에 편찬된 많은 사전들에 영향을 끼쳤다. 다음에서 그 예를 살피기로 한다.

5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전들 중에서 ‘당하다’의 용법 기술에 ‘보다’라는 뜻풀이가 쓰이는 경우는 (2)에서 제시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이 유일한데, 예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탓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법을 가리키는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로 <조선어사전>에서 ‘보다’의 항목을 찾아보면, 다음에서 보듯이 14번째 의미로 ‘몹소 당하다’라는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1)[보다] 他 ① 모든 물건이 눈에 비치어 그 형상을 알다. ② 참다. ③ 구경하다. ④ 만나다. ⑤ 값을 부르다. ⑥ 책을 읽다. ⑦ 조사하다. ⑧ 사람을 얻다. ⑨ 받다. ⑩ 집을 지키다. ⑪ 무꾸리를 하다. ⑫ 일하다. ⑬ 입다. ⑭ 몹소 당하다. ⑮ 누리다. ⑯ 하고 싶다.

6 <큰사전>이 간행된 것은 1947년부터이나, 1942년경에는 이미 초판 교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조선어학회 편찬 <조선말 큰사전>으로 출간되었으나, 이후 한글학회 지은 <큰사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큰사전>의 편찬에 대해서는 한글학회(197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 <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 > 유열 (1950)

당-하다(當--)  여벗 이치에 맞다.  
 재여벗 달아서 만나다. 이르러서 맞달다.  
 남여벗 1 넉넉히 이겨내다. 2 닥쳐오는 일을 감당하다.  
-당-하다(-當--)  여벗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름씨에 붙어서 그 움직임의 입을음  
보이는 말. ☆ 표창당하다.

(6) < 국어새사전 > 국어국문학회 (1958)

당하다(當-)  행여변 사리(事理)에 맞다.  
 동여변 1 달아서 만나다. 2 넉넉히 이겨내다.  
-당하다(當-)  접미여변 동작이 수동적임을 보이는 말. \*창피 당하다.

(7) < 표준국어사전 > 신기철, 신용철 (1958)

당-하다(當-)  행여변 이치에 맞다.  
 재여변 서로 마주 달다. 이르러서 맞달다.  
 태여변 ① 넉넉히 이겨내다. ② 닥친 일을 감당해 내다.  
-당하다(當-)  접미여변 움직임을 나타내는 명사(名詞)에 붙어서 그 움직임이 수  
동적(受動的)임을 보이는 동사를 이루어주는 말. \*거절~.

7 이윤재는 (2)의 <조선어사전>의 편찬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사전> 편찬과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신영철(1938), 김동연(1991), 이병근(2001), 최경봉(2005) 등의 기술을 참조할 수 있다. 김동연(1991)에서는 ‘만만하다’의 뜻을 살피면서 <조선어사전>의 뜻풀이 중 일부가 <표준 조선말 사전>의 뜻풀이와 일치함을 지적하고, 두 사전의 편찬 작업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당하다’의 경우에는 ‘만나다’, ‘맞다’의 표현이 (2)와 (3)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2)의 ‘감당하다’라는 뜻풀이는 (3)에서는 쓰이지 않았으나 (4)의 <큰사전>에서 확인된다. 문세영이 조선어 사전 편찬회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나 이윤재가 <조선어사전>의 편찬에 관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선어사전>과 <큰사전> 역시 그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8) &lt; 새사전 &gt; 홍웅선, 김민수 (1959)

당-하다 [當-] ㄱ\* 1 사리에 맞다. 2 만나거나 맞닿다. 3 넉넉히 이겨내다  
4 닥쳐오는 일을 감당하다.

-당하다 [當-] ㄱ\*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름씨에 붙어서 그 움직임의 입을음 보  
이는 말

## (9) &lt; 국어대사전 &gt; 이희승 (1961)

당-하다(當-) ㄹ(하)변 사리에 맞다.  
---- ㄱ(하)변 만나다. 이르러 맞닿다. ★ 막상 눈 앞에 -면 어찌할 수 없다.  
---- ㄷ(하)변 ① 넉넉히 이겨내다. ★ 재능에 있어서는 그를 -ㄹ 수가 없다.  
② 닥쳐 오는 일을 감당하다.

-당하다(當-) ㄹ(하)변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그 동작이 수동적(受動的)  
임을 보이는 동사를 이루어 주는 말. ★ 결박-/체포-.

(5)-(9)의 사전 기술은 기본적으로 (4)의 <큰사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5)의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sup>8</sup>, (7)의 <표준국어사전>, 그리고 (9)의 <국어대사전>은 모두 형용사와 자동사, 타동사, 접미사로 품사를 나누어 제시하는 (4)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뜻풀이 역시 <큰사전>의 표현과 거의 일치한다. (6)의 <국어새사전>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지 않으며, (8)의 <새사전>은 '당하다'를 형용사로 처리하고 그 안에서 여러 용법을 함께 기술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뜻풀이 표현은 <큰사전>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8 (5)의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에서는 참고 도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4)의 <(조선말) 큰사전> 역시 (3)의 <표준 조선말 사전>, (2)의 <조선어사전>과 함께 참고 도서로 언급되어 있다.

## 2.2. 1990년대 이후에 편찬된 사전

1988년의 맞춤법 개정 이후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 편찬된 사전은 수적으로 매우 방대하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 (10) < 금성판 국어대사전 > 김민수 외 (1991)

당-하다 [當-] | **동[여불]** 1(타) ① (어떤 일을) 맞거나 겪다. ♣ 상(喪)을~/죽음을~/창피를~.

② 맞서 겨루어 이기거나 감당하다. ♣ 힘으로 그를 당할 사람은 없다 / 많은 빨래를 혼자 당해 낼 재주가 없다.

2 (자) ① (어떤 때나 형편에) 이르러 처하다.

② (누구에게) 피해야 놀림 따위를 받다. ♣ 아이고, 이 녀석한테 또 당했구나!

II **형[여불]** ((주로, 부정하거나 의문형으로 쓰여)) 사리에 맞다. ♣ 당치 않은 말 / 제 처지에 그렇게 비싼 옷이 어디 당키나 합니까?

III **접미** ((일부 명사에 붙여)) 이롭지 못한 일을 겪음을 나타내는 말.

♣ 거절~/체포~/처벌~/공격~.

### (11) < 우리말 큰사전 > 한글학회 (1992)

당-하다 **움(제) [여벗]** ① 어떤 때나 형편에 이르거나 처하다. (H) 결전의 날에 당하여 선수들의 사기는 더욱 높았다. 이 지경에 당하도록 환자를 그냥 두다니….

② 어떤 해를 입다. (H) 누구에게 당했는가. 철부지한테 당하다니….

---- (남) 여벗 ① 어떤 때나 일을 직접 만나다. (H) 이 날을 당하여 생각나는 일로는… 부모상을 당하였다. 대장부 나라 일을 당하여 어이 사정을 돌아보리요. <구운몽>.

② 겨루어서 이겨내다. (H) 그를 힘으로는 당할 수 없다. 한 명이 능히 열 명 백 명을 당할 수 있도록 정예를 길렀다.

- ③ =감당하다<sup>2</sup>. (H) 혼자서 그 일을 당해 낼 수 없었다. 위홍의 위세는 누구 한 사람 감히 당해 낼 사람이 없었다. <박종화:삼국풍류>.
- ④ 어떤 행동을 입다. (H) 고통을~. 망신을~. 변을~. 거절~. 결박~.
- ⑤ 금품을 맡아서 대다. (H) 학비를 당해준다. 그가 나의 노비를 당하였다.
- □[여벳]알맞거나 마땅하다. (H) 이 나이에 그런 옷이 당할까. 당치도 않은 말. 첩실한테 정경부인의 칭호를 내리다니 당한 소린가. <박종화:여인천하>. [當-]

## (12) &lt; 표준 국어대사전 &gt; 국립국어연구원 (1999)

당<sup>11</sup> (當)'당하다'<sup>1</sup>의 어근.당-하다<sup>1</sup>

- ① [동] ① 【…에/에게】 해를 입거나 놀림을 받다. ♣ 사기꾼에게 당하다/이번 만우절에도 그의 거짓말에 또 당했다./우리는 저들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말 거예요./육십 평생 당할 만큼 당하고 살았으니 할 말이나 다 하고 죽어야겠소. <<송기숙, 양태도>>
- ② 【…에】 【…을】 어떤 때나 형편에 이르거나 처하다. ♣ 선수들은 시합 날에 당하여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다./이 지경에 당하도록 잠자코 있기만 했던 말이 오?//어려운 때를 당하여 용기를 내다/이런 사태를 당하여 우리가 어찌 몸을 사리겠습니까?//제철을 당하면 도루묵이 끼니마다 상에 올랐다. <<조풍연, 청사 수필>>
- ③ 【…에/에게】 【…을】 맞서 이겨 내다. ♣ 사람을 부리는 수완에 있어서는 그에게 당할 사람이 없다.//자식의 고집을 당해 낼 부모는 드물다./이 근방에서는 그들을 당해 낼 패거리가 없다.
- ④ 【…에게 …을】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입다. ♣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다/상급자에게 창피를 당하다/김 대리는 지난 밤에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동료들에게 지금 놀림을 당하고 있다./초등 학생들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 ⑤ 【…을】 ① 좋지 않은 일 따위를 직접 겪거나 입다. ♣ 사고를 당하다/피해를 당하다/화를 당하다/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이웃사촌이 갑자기 부친상을 당했다./



국난을 당하여 온 거래는 침략자에 대항하여 싸웠다.

② 일이나 책임 따위를 능히 해내거나 감당하다. ¶ 혼자서는 이 많은 일을 당해 낼 도리가 없다./그렇게 어린 사람이 어찌 그 많은 부담을 당해 내는지 놀랍기만 하다.

⑥ 【…에】 다른 것에 해당하거나 맞먹다. ¶ 보고 듣고 하는 공감각적인 교육은 둘 중에 하나만을 하는 단순한 교육에 비해 그 효과가 3배에 당한다는 보고가 있다.

Ⅲ ④ 【…에/에게】 (흔히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여) 사리에 마땅하거나 가능하다. ¶ 그들에게는 결코 당치 않은 일이었다./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박태원, 천변 풍경>>

-당하다<sup>2</sup> (當--)

① 접사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거절당하다/무시당하다/이용당하다/체포당하다/혹사당하다.

② ④ -당하다<sup>1</sup>.

이전 시기의 사전들과 비교해 볼 때, (10)-(12)의 사전에서는 예문이 보다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뜻풀이가 상세해졌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거나 놀림을 받다’라는 용법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당하다’의 용법 중 피동이나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sup>9</sup> 한편, (11)의 <우리말 큰사전>은 ‘행동을 입다’라는 용법에 대해 접미사로 처리하지 않고 타동사 안에서 함께 다루고 있으며, ‘금품을 맡아서 대다’<sup>10</sup> 라는 용법을 제시하였다. (12)의 <표준 국어대사전>은

9 ‘당하다’가 피동이나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일본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0 <우리말 큰사전>의 참고 도서로 ‘<조선말 사전(1962)> 외’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말 큰사전>에 이러한 용법이 제시된 것은 아마도 다음의 (13)-(15)에서 제시하는 북한 사전의 기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13)의 <조선말 사전>에서는 ‘감당하다’라는 뜻풀이 아래에 유사한 의미의 예문을 제시하였으며, (14)의 <현대 조선말 사전>이나 (15)의 <조선말 대사전>에는 ‘(돈, 비용, 재물을) 내거나 대다’와 같은 뜻풀이가 쓰였다. 참고로 일본에서 간행된 <朝鮮語大辭典(大阪外大)>(1986), <朝鮮語大辭典(小学館)>(1993) 등에도 이 용법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합 양상을 기준으로 문형을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다른 것에 해당하거나 맞먹다’<sup>11)</sup> 라는 용법을 제시하였다.

### 2.3. 북한에서 편찬된 사전

해방 후 북한에서는 1948년경부터 본격적인 사전 편찬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1956년에는 <조선어소사전>을 간행하고, 그 이후에 <조선말 사전>, <현대 조선말 사전>, <조선말 대사전> 등을 출판하였다. 북한의 사전은 해방 후 언어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표제어를 현대어 중심으로 선택하였으며, 국가 기관인 사회과학원의 언어연구소에서 편찬되었다.

#### (13) < 조선말 사전 > 북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편 (1960)

당하다(當~) [동] (자) (일정한 시기나 사태나 환경 등에) 이르러 처하다. | 오늘날에 당하여서도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감격이 새로와진다.

(타) ① (닥쳐오는 일을) 직접 만나거나 겪다. | 나는 봄을 당할 때마다 7년 전 옛 봄을 생각한다. / 그 일은 나도 당해 보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② 감당하다. | 아직 실지의 경험이 없는 그가 이런 큰 책임을 당하여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 이력저력 학교에 보내기는 하였으나 졸업할 때까지 그 뒤를 당해 낼 일이 큰일이라고 아버지는 걱정하시었다(낡은 사회).


③ 대적하여 이겨 내다. | 원수들의 폭격이 아무리 심하여도 식량 증산으로 전선을 원호하며 승리를 보장하리라고 일떠선 인민들은 당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곳 지리는 이 할아버지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 성춘이는 동호의 정당한 말을 당할 수가 없게 되자 더 말을 못 하고 서 있다가 획 달아 났다.

④ (행동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다음에 쓰이어) 그 명사가 나타내는 행동을 입다(흔히

11 1998년에 연세대학교 언어 정보 개발 연구원에서 편찬된 <연세 한국어 사전>에도 ‘해당하다, 맞먹다’의 용법이 제시되어 있다.

자기에게 리롭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쓴다). || 강제~. 거절~. 례박~. 출학~. | 그는 큰 모욕이나 당한듯 저도 모르게 울화가 치받치였다. / 그는 말을 한 번 냈다가 면박을 당하고 보니 속으로 불쾌하고 아니꼬운 생각이 들어, 다시는 봉선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⑤ (형용사적으로 쓰이어)(사리나 어떤 환경 등에) 합당하다. |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지금 시절에 당한가요? / 한 나이라도 젊을 때 같으면 나도 얼른 나서겠네만 지금 이 나이에 평생 안 해 보던 씨름이 어디 당한 말인가?

◇ 날 잡은 놈이 자루 잡은 놈을 당할가.  날

(14) < 현대 조선말 사전 (제2판) >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1981)

당하다 [동] (타) ① (어떤 일을) 직접 만나거나 겪다. | 물론 그들이 사령관동지의 두터운 사랑을 어제오늘 처음 받아보는것은 아니였으나 이렇게 당하고 보니 진정 가슴뜨거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② 말아하다. | 그는 능히 이 책임을 당해낼수 있을것입니다.



③ 맞서서 이겨내다.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④ (돈이나 비용 같은것을) 내거나 대다. | 그는 왜정때 종시 월사금을 당하지 못하여 소학교를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을수 없었다.

⑤ (행동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다음에 쓰이어) 그 명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미치여오는것을 받다. 주로 자기에게 리롭지 않은 사실에 쓰인다. || 거절~.

⑥ (형용사적으로 쓰이어) 사리에 맞거나 마땅하다. || 당치않은 소리. | 애들아. 이 어미한테 생일이 당하냐. 네 아버지도 생일을 못자시고 갔는데 내 생일이 당하냐. (장편소설 <<피바다>>에서)

(15) < 조선말 대사전 > 과학원 언어연구소 (1992)

당하다   [동] | (자) ① (어떤 시기나 사태, 환경 등에) 다달이거나 이르러 처하다. | 시각이 당하니 두편 장수는 마주 서서 선전포고를 하였다. (<<현대조선문학 선

집>>9)

② 치르거나 걸리다. || 감쪽같이~.

|| (타) ① (어떤 일을) 직접 만나거나 겪다. | 물론 그들이 사령관동지의 두터운 사랑을 어제오늘 처음 받아보는것은 아니었으나 이렇게 당하고보니 진정 가슴뜨거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② 능히 말아 처리하거나 치르다. | 그는 능히 이 책임을 당해낼수 있을 것이었다.

③ 맞서서 이겨내다. | 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④ (물어야 할 재물이나 돈을) 내거나 대다. | 그는 왜때때 종시 월사금을 당하지 못하여 소학교를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을수 없었다.

⑤ (행동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다음에 쓰이어) 그 명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미치어 오는것을 받다. 주로 자기에게 리롭지 않은 사실에 쓰인다. || 거절~. 부상을~. | 그는 큰 모욕이라도 당한듯 몹시 불쾌하였다. / 그는 말을 한번 냈다가 면박을 당하고 보니 속으로 아니꼬운 생각이 들었다. [當舖](358)

당하다<sup>2</sup> [형] 사리에 맞거나 마땅하다. | 애들아. 이 어미한테 생일이 당하냐. 네 아버지도 생일을 못 쇠시고 갔는데 내 생일이 당하냐. (장편소설 <<피바다>>) [當舖]

북한에서 편찬된 (13)-(15)의 사전에서는 모두 접미사로서의 ‘당하다’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13)의 <조선말 사전>과 (14)의 <현대 조선말 사전(제2판)>은 ‘사리에 맞거나 마땅하다, 합당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형용사로 처리하지 않고 ‘형용사적으로 쓰이어’라는 단서를 달아 타동사의 범주 내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15)의 <조선말 대사전>은 뜻풀이나 예문 제시 등에서 (13), (14)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나, (15)에서는 형용사의 품사를 설정하여 별도의 표제어로 처리하였으며, ‘치르거나 걸리다’라는 뜻풀이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거나 놀림을 받다’와 같은 용법을 기술하였다. 한편, 사전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13)은 실제 작품에서 쓰인 용례를 출전과 함께 제시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며, (15)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단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 3. 사전 기술의 비교 및 고찰

#### 3.1. 뜻풀이 용어 비교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1)–(15)의 사전에서 ‘당하다’의 뜻풀이로 사용된 표현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16)은 두 가지 이상의 사전에서 동일한 용어가 반복되어 쓰이는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16) ‘당하다’의 뜻풀이에 사용된 용어

	1990년대이전									1990년이후			복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만나다	○	○	○	○	○	○		○	○						
(일을) 만나다											○		○	○	○
닥치다	○	○													
달다			○	○	○	○	○								
맞달다				○	○		○	○	○						
이르다 (+ 맞달다)				○	○		○		○						
이르다 (+ 처하다)										○	○	○	○		○
처하다										○	○	○	○		○
겪다										○		○	○	○	○
감당하다		○		○	○		○	○	○	○	○	○	○		
대적하다		○											○		
이겨내다 / 이기다			○	○	○	○	○	○	○	○	○	○	○	○	○
맞서다										○		○		○	○
겨루다										○	○				
사리 / 이치에 맞다		○	○	○	○	○	○	○	○	○				○	○
마땅하다											○	○		○	○
(돈 / 금품 등) 대다											○			○	○

먼저 ‘만나다’의 경우, (1)–(2)의 초기 사전에서는 단독으로 제시되지만, (3)–(9)

의 사전에서는 주로 ‘달아서 만나다’, ‘만나거나 맞닿다’와 같이 ‘달다, 맞닿다’와 함께 쓰인다. 그에 비해, 북한에서 나온 사전과 (11)에서는 ‘만나다’가 ‘때나 일을 만나거나 꺾다’와 같이 실현된다. ‘이르다’ 역시 1990년대 이전의 사전에서는 ‘이르러(서) 맞닿다’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 1990년대 이후의 사전이나 북한에서 나온 사전에서는 ‘이르러 처하다’의 표현으로 실현된다.

한편, ‘감당하다’, ‘이겨내다/이기다’<sup>12</sup>, ‘사리/이치에 맞다’<sup>13</sup>와 같은 표현은 초기의 사전에서부터 1990년대 이후에 편찬된 사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한의 사전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쓰이고 있다. 그에 비해, ‘처하다’, ‘꺾다’, ‘맞서다’, ‘겨루다’, ‘마땅하다’와 같은 표현은 1990년대 이전의 사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다. 대체로 1990년대 이전의 사전들은 <큰사전>의 영향을 받아 뜻풀이 용어가 거의 흡사한 데에 비해, 1990년대 이후의 사전이나 북한에서 편찬된 사전들은 기존 사전들의 기술을 참조하여 수용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뜻풀이를 시도하거나 보다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3.2.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당하다’는 명사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초기의 사전에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4)의 <큰사전> 이후의 사전에서는 대부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에 따라서는 그러한 용법에 대해 접미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로 처

12 ‘감당하다’는 대부분 ‘일/책임을 감당하다’의 의미로 기술되고 ‘이겨내다’는 주로 상대의 힘이나 능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10)에서는 ‘맞서 겨루어 이기거나 감당하다’로 통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13 형용사로서의 ‘당하다’에 대해 ‘맞다’라는 뜻풀이를 사용한 사전들 중 (4)의 <큰사전>과 그 영향을 받은 (5)-(9)에서는 ‘맞다’에 대해 용법 구분 없이 형용사와 동사의 품사를 동시에 제시하였고 (10)과 (15)에서는 ‘맞다’를 동사로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표제어와 뜻풀이 표현의 품사 처리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편, (2)와 (3)에서는 ‘맞다’의 뜻풀이를 사용하였으나 ‘당하다’와 ‘맞다’ 모두 동사로 처리하였고, (11)과 (12)에서는 형용사로서의 ‘당하다’에 대하여 ‘알맞다’, ‘마땅하다’, ‘가능하다’와 같은 형용사 표현을 뜻풀이로 제시하였다.

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용법 기술이나 제시된 예들의 성격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17)에서 각 사전의 사전 처리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7)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사전 기술		예
(4)	접	동작이 수동적임	결박 거절
(5)	접	움직임의 입음	표창
(6)	접	동작이 수동적임	창피
(7)	접	움직임이 수동적임	거절
(8)	접	움직임의 입음	-
(9)	접	동작이 수동적임	결박 체포
(10)	접	<u>이롭지 못한 일을 겪음</u>	거절 체포 처벌 공격
(11)	동	행동을 입다	고통 망신 변 거절 결박
(12)	접	피동	거절 무시 이용 체포 혹사
(13)	동	행동을 입다. <u>이롭지 않은 사실.</u>	강제 거절 론박 출학 모욕 면박
(14)	동	행동이 미치어오는 것을 받다. <u>이롭지 않은 사실.</u>	거절
(15)	동	행동이 미치어오는 것을 받다. <u>이롭지 않은 사실.</u>	거절 부상 모욕 면박

위에서 볼 수 있듯이 (5)의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과 (8)의 <새사전>에서는 ‘움직임의 입음’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처리하였으며, (4)의 <큰사전>과 (6), (7), (9)에서는 ‘움직임/동작이 수동적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10)의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는 ‘이롭지 못한 일을 겪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처리하였으며, (12)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기술하였다. 그에 비해 (11)의 <우리말 큰사전>이나 북한에서 편찬된 (13)의 <조선말 사전>에서는 접미사로서의 용법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을 입음’이라는 용법의 동사로 처리하였으며<sup>14</sup> 역시

14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3)의 <조선말사전>은 (11)의 <우리말 큰사전>의 참고도서로 기술되어 있어, 그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 편찬된 (14), (15)에서는 ‘행동이 미치여 오는 것을 받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온 사전에서는 ‘주로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사실에 쓰인다’라는 기술을 덧붙였다.

한편, 각 사전에서 제시된 예들을 살펴보면, (5)에서 제시된 ‘표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들은 부정적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거절’은 (17)에 정리한 11종의 사전 중 8종에서 반복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체포’와 ‘결박’은 각각 3종의 사전에서 제시되었다. 그런데 ‘거절’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타동성을 지니는 서술명사로, ‘거절당하다’와 ‘거절하다’ 사이에는 피동-능동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에게/로부터/에 의해 거절(을)당하다’와 같이 조사 표현에 의해 행동주가 실현될 수 있다. ‘체포’나 ‘결박’, 그 밖에 (10)에서 제시된 ‘처벌, 공격’, (12)의 ‘무시, 이용, 흑사’, (13)의 ‘강제, 론박, 출학, 모욕, 면박’ 역시 ‘거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6)에서 제시된 ‘창피’나 (11)의 ‘망신, 고통, 변’, 그리고 (15)의 ‘부상’은 ‘-에게/로부터/에 의해’ 등의 조사 표현과 함께 실현될 수 있으나 조사 결합 구성을 행동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하다’와 결합하여 타동문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함께 예로 제시한 것은 ‘당하다’ 구성과 ‘하다’ 구성의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다소 의미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sup>15</sup> 또한, (6)의 ‘창피’나 (11)의 ‘고통, 변’은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사전 기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주요 한국어 사전들에 있어서의 ‘당하다’의 용법 기술에 대해 살펴

15 참고로 일본에서 편찬된 사전에서는 ‘창피’ (<現代朝鮮語辞典>(1967) 天理大学), ‘부상, 수모’ (<朝鮮語辞典>(1993) 小学館), ‘피해’ (<朝鮮語大辞典>(1986) 大阪外大)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와 같은 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일본어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보았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당하다’에 대해 동사의 품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형용사의 품사를 설정하는 경우도 10종에 이른다.<sup>16</sup> ‘당하다’에 대해 접사로서의 품사를 설정한 사전은 8종인데, 그 중 (10)의 <금성판 국어대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에서는 접사로서의 ‘-당하다’를 별도의 표제어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당하다’의 동사로서의 용법과 형용사로서의 용법은 모두 한자 ‘當’의 용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는데<sup>17</sup> ‘당하다’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나 ‘~에게 당하다’와 같이 피해 등의 부정적 의미와 관련하여 쓰이는 경우는 한자 ‘當’과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사전 기술에 있어서도 초창기의 사전에서는 피동의 용법이 기술되지 않았으며, ‘-에게 당하다’와 같은 용법은 1990년대 이후에 편찬된 <금성판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표준 국어대사전>, <조선말 대사전>에서 기술되고 있다. 한자 ‘當’의 쓰임에서 비롯된 ‘당하다’가 어떻게 하여 그러한 용법으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면

16 (8)에서는 ‘당하다’에 대해 동사의 품사를 기술하지 않았으며, (2), (3), (13), (14)에서는 형용사나 접미사의 품사를 설정하지 않고 모두 동사로 처리하였다. 형용사와 동사의 품사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의 표제어 안에서 기술하였는데 (15)에서는 각각 별도의 표제어로 설정하였다.

17 한자 ‘當’이 참여하는 한자어 중에는 ‘강당(堪當), 당당(擔當), 당도(當到), 당면(當面), 당부(當付), 당선(當選), 배당(配當), 충당(充當)’ 등과 같이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당(可當), 당연(當然), 부당(不當), 온당(穩當), 적당(適當), 정당(正當), 지당(至當), 타당(妥當), 합당(合當)’ 등과 같이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도 있다. 이 중에는 사전에 따라 품사가 다르게 기술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표준 조선말 사전>에서는 ‘不當하다’와 ‘舍當하다’를 동사로 처리하였으며, <새사전>에서는 ‘正當하다’를 동사로 처리하였다. ‘해당(該當)하다’의 경우, <조선어사전>이나 <표준 조선말 사전>, <큰사전>,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 <표준국어사전>, <국어대사전>에서는 형용사로 기술하였으나, <국어새사전>이나 <새사전>, 1990년대 이후에 편찬된 사전과 북한에서 나온 사전에서는 모두 동사로 처리하였다. 또한, ‘상당(相當)하다’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형용사로 기술되고 있으나, <국어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의 예문 중에 제시된 ‘상당하는’의 활용형은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어새사전>에서는 ‘상당하다’에 대해 용법 구분 없이 형용사와 동사의 품사를 동시에 함께 제시하였는데, ‘상당하다’는 의미나 활용양상에 있어서 형용사의 용법과 동사의 용법이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용사로서의 ‘상당하다’는 ‘정도가 꽤 높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비해, 동사로서의 ‘상당하다’는 ‘기준이 되는 수준에 이른다, 해당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조사 ‘-에’ 구성을 논항으로 취하고 ‘상당하는, 상당한다’와 같은 활용형으로 실현된다. 참고로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는 형용사로서의 ‘상당하다’와 동사로서의 ‘상당하다’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표제어로 설정하였다.

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사전들을 중심으로 ‘당하다’의 사전 기술을 살폈으나, 지면상의 제약 등으로 미처 언급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못한 사전들도 적지 않다. 또한, ‘당하다’와 관련되는 ‘받다’, ‘되다’, ‘시키다’ 등의 피·사동 표현의 사전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밖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동언(1991), 뜻풀이로 본 국어 사전 편찬사, 한국어학 2.  
 김청자(2003), <국어 피동 타동사 구문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수경(2007),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광우 외(1973), 국어사전의 어학적 분석 연구(1), 어문논집 8.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박형익(2005), <(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태학사.  
 신영철(1938), 문세영 선생 지은 조선어사전, 한글 61.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이병근(2001), 남북한 사전 편찬 비교, 북한연구 4-3.  
 이정택(2004), <현대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  
 이흥식(1991), 피동과 피동구문, 주시경학보 8.  
 임홍빈(1993), 북한사전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3-4.  
 조재수(1982), <국어사전편찬론>, 과학사.  
 조재수(1991), 북한의 사전 편찬에 대한 고찰, 한글 213.  
 조재수(1996), 한글학회와 사전 편찬, 한희생 주시경 연구 9.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최현배(1937/75), <우리말본>, 정음출판사.  
 한글학회(1970),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허재영(2005), 국어사전 편찬 정책 및 그 역사, 국어교육연구 15.  
홍종선(1996), 국어 사전 편찬, 그 성과와 과제(1), 한국어학 3.  
北村唯司(2004), <한국어 피동 표현 연구>, 제이앤씨.

<<사전류>>

- <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 심의린 (1925) (박형익 2005).
- <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 문세영 (1938) 영창서관.
- < 표준 조선말 사전 > 이윤재 (1947) 아문각.
- < 큰사전 > 한글학회 (1947-57) 을유문화사.
- < 현대 학생 우리말 사전 > 유열 (1950) 현대사.
- < 국어새사전 > 국어국문학회 (1958) 동아출판사.
- < 표준국어사전 > 신기철, 신용철 (1958) 을유문화사.
- < 새사전 > 홍웅선, 김민수 (1959)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 국어대사전 > 이희승 (1961) 민중서림.
- < 금성판 국어대사전 > 김민수 외 (1991) 금성출판사.
- < 우리말 큰사전 > 한글학회 (1992) 어문각.
- < 표준 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연구원 (1999) 두산동아.
- < 조선말 사전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편 (1960) 과학원출판사.
- < 현대 조선말 사전 (제2판) >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1981) 백의.
- < 조선말 대사전 > 과학원 언어연구소 (1992) 동광출판사.
- < 연세 한국어 사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두산동아.
- < 朝鮮語辭典 > 朝鮮總督府 (1920) 国書刊行会.
- < 大学書林朝鮮語小辭典 > 宋枝学 (1962/74) 大学書林.
- < 現代朝鮮語辭典 > 天理大学朝鮮学科研究室 (1967) 養徳社.
- < 朝鮮語大辭典 (上·下) > 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 (1986) 角川書店.
- < 朝鮮語辭典 > 油谷幸利ほか3人 (1993) 小学館.